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피에타, 1890년, 유채,
현대종교미술관, 바티칸 박물관

**성화
해설**

성모 마리아는 슬픔을 뒤로하고 십자가에서 내린 아들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새벽 하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입당송 시편 84(83),10-11

제1독서 잠언 9,1-6

화답송 시편 34(33),2-3,10-11,12-13,14-15(◎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
- 아이들아, 어서 와 내 말 들어라. 주님 경외를 가르쳐 주리라. 삶을 즐기고 복을 누리려, 장수를 바라는 이 누구인가? ◎

○ 네 혀는 악을 조심하고, 네 입술은 거짓을 삼가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찾아라. ◎

제2독서 에페 5,15-20

복음환호송 요한 6,5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복음 요한 6,51-58

영성체송 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인 1989년, 우리나라에서는 참으로 은혜롭게도 제44차 세계 성체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들었고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몸소 성체 대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세계 성체 대회를 준비하고 지내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추기경님께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인 토양 위에서 성체성사를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는 성체성사적인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추기경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성체성사의 의미를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의 강력한 몸짓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셨지만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전 실존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이들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으로써 그분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성사에 초대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듣게 되는 ‘생명’ 이나 ‘머물다’ 또는 ‘다시 살리다’ 라는 용어는 우리가 향유하게 될 구원의 유익을 설명해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체성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몸소 내어주시는 그분의 살

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총의 순간이요, 기쁨의 장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뉘는 심오한 신비가 극명하게 표출되는 성체성사 안에서 신앙인들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만남을 이루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믿는 이들은 성체성사 안에서 그분을 만남으로써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살과 피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임을 자처하고는 있지만 과연 자신을 온전히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있는지요?

믿는 이들은 성체성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나뉘는 실천적인 삶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서 구현됩니다. 자기의 배 속만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밥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 하신 추기경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꺾전을 울리는 것이 과연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

엄마인지 딸인지



최정원 다리아 | 뮤지컬 배우

지금 금 생각해 보면 어렴풋한 기억과 함께 풋풋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지난 추억이 있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 중 후자에 속하는 ‘통행금지’ 라는 제도가 1982년, 제가 중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해에 해지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을 통행금지라는 제도는(아마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문밖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차들도 다니지 않았던 제도로 기억됩니다) 그게 없어지던 해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 통행금지와 더불어 중고등 학생들의 두발 자율화도 시행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군인들보다 더욱 짧은 남학생들의 일명 뽀뽀머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학생인 나에게 또 하나의 ‘적’ 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건바로 ‘교복’ 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디자인의 교복이 아니라 모든 여학생들이 동일한 검은 스커트에 학교 배지, 학년 마크, 이름표가 달린 흰색 카라 옷을 입었습니다. ‘친구’ 등의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 시대의 교복을 보여주기에 아마도 어떠한 모습인지는 그 교복을 입어보지 않은 세대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 교복에

흰 양말, 검은 단화 등으로 깔끔한 이미지로 보여져 지금은 그때의 교복을 입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 여학생들은 그러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원이 너 허리에 말아 올린 치마 펴지 못해!” 아침마다 어머니의 잔소리였습니다. 길이가 유난히 길어 보이는 치마 길이에 불만이 있어(대부분 1학년 학생들의 교복은 크기 마련입니다) 교복 치마 윗단 허리 부분을 보통 두세 번씩 말아 그 길이를 짧게 해서 입는 게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많은 여학생들의 교복 입은 모습을 보며 환한 웃음을 자주 짓습니다. 그 당시하고는 상대도 안될 만큼 다양해진 교복이 예뻐서도 그렇겠지만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교복’ 은 과거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기억들 중 선자에 속하는, 내게 이토록 풋풋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기억입니다.

“엄마, 이 치마 너무 길잖아!” 이젠 제 딸아이가 하얀 치마의 허릿단을 한 번 접어 입습니다. 허리가 고무줄로 되어 있는 아이들 치마라 한 번 접어 입는 들 크게 문제 되지는 않지만 이제 고작 11살 난 아이가 치마 길이를 신경 쓴다는 게 맹랑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젠 저와 딸 아이가 치마 길이로 실랑이하면서도 나조차도 교복 치마를 줄여 입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33

안락사에 대한 간청은 사실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흔히 죽여 달라고 하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원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고뇌에 찬 간원인 것이다. 의학적인 가료 외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부모, 자녀, 의사, 간호사 등 가까운 모든 사람이 병자를 에워쌀 수 있고 또 감싸 주어야 하는 인간적이고도 초자연적인 온정이 필요한 것이다” (안락사에 관한 선언 2장).

‘안락사(Euthanasia)’는 희랍어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평화로운 죽음’ 등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장애나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의도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안락사가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문화는 “효율성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또 지나치게 짐스러운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생명의 복음 64항). 따라서 죽여 달라는 이들의 간청은 사실 자신들을 짐스럽게 여기는 가족과 사회에 대해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종을 앞둔 이들을 돕는 호스피스 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무형 · 유형의 성전

2007년은 평양교구 설정 80주년, 2009년은 성 베네딕도회가 한국에 진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로 인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료들이 발굴되고, 잘못 전해지던 사진도 원래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산대성당의 사진인데 그동안 함흥교회사 등에 주교관의 사진을 대성당 외부 사진으로 잘못 기재해왔으나 독일 오틀리엔에 보관된 사진과 경향잡지의 사진 발굴로 대성당 외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원산의 대성당은 평양의 관후리 주교좌 대성당과 마찬가지로 분도회 수사의 설계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구조의 건축물이었다. 서울의 명동대성당보다 더 넓은 면적의 내부를 기둥 하나 없이 지붕을 얹은, 그야말로 건축학적으로도 기념비적이라 할만 했다. 완공된 성당 내부와 대미사 사진을 보면 그 엄청난 스케일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서양 선교사들의 꼼꼼한 기록 정신 덕분에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의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들이 사진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지금 몇 년째 정성을 다해 복원하고 있는 명동대성당을 보며 북의 성당들도 모두 남아 이렇게 복원, 수리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 탄압국가이다. 이미 그들은 공산주의의 순수성도 잃어 버렸고, 사회주의의 모습도 잃어버렸고, 한 인물과 그가게에 대한 충성이 거의 신흥 종교 국가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는 더더욱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진정한 신앙인들은 과연 존재하는가?

비록 앞서 언급한 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성전은 모두 파괴되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을지라도, 지금 북한에는 신앙을 간직해온 신자들의 마음속 성전은 남아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당신



원산대성당 미사 전경

자신이 참된 성전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으며, 또 그러한 주님을 참되게 믿으며 섬기는 이는 또 하나의 성전임을 말씀하셨다. 지금 북에는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 어떤 인간의 손으로도 만들 수 없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들이 신앙인들 속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로마서 8장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장하게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성모님의 승천 축일에 주셨던 하늘의 축복과 기쁨의 선물이 눈물로 당신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다시금 내리셔서 그동안 지하에 숨어 있던 모든 무형의 성전들이 당당히 우뚝 서고 유형의 성전들도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 남한의 신앙인들도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함께 준비해나가야 하겠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맞은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이는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겠기에, 올해의 성모 승천 대축일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그동안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반성하며 남과 북 모두 함께 진정한 해방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한다.

소식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8월19일 최민순 요한 신부(63세) 1975년, 용산
- 8월23일 박귀훈 요한 신부(90세) 2006년, 용인

평화화랑 제2전시실: 가톨릭신학대학교 예림회원전

평화화랑은 '가톨릭신학대학교 예림회원전'을 8월 19일(수)~25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교구청 알림

성소모임

8월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기원미사

- 때, 곳: 8월18일(화) 11시, 명동성당 지하소성당
- 집전 및 강론: 김중기 신부(예수성심전교수도회)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회

중독학 전문학교 9기 수강생 모집

- 과목: 중독학입문, 심리학개론, 가족치료, 12단계, 중독치료사정 / 각 과목당 18만원
- 접수 및 문의: 가톨릭 알코올 사목센터 홈페이지(www.sulsul.or.kr) 참조 / 8월31일까지 접수

경찰서 유치장사목 봉사자 모집

- 대상: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세례·건강 받은 60세 이하 교우) / 주최: 경찰사목위원회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남성/여성 총구역장 피정

- 대상: 각 본당 남성/여성 총구역장
- 곳: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8월24일까지 접수)
- 문의: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남성	8월30일(일) 오전 10시-오후 4시
여성	8월31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사목국 성서사목부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 대상: 일반교우 및 수도자 / 문의: 775-5789
- 때, 곳: 8월31일부터 매주(월) 오전반(10시30분-12시30분)·오후반(19시-21시) 15주, 명동성당 내 교육관

	입문	1권	2권
오전반	인완식 신부	허영엽 신부	유태종 신부
오후반	신희준 신부	이형진 신부	전두병 신부
	3권	4권	5권
오전반	이주하 신부	안병철 신부	박기석 신부
오후반	이준호 신부	김진호 신부	황중호 신부

마리아의 종 수녀회

- 때: 8월23일(일) 오후 2시-4시
- 곳: 돈암동 본원 / 문의: 010-3065-8221

선한 목자 예수 수녀회

- 때: 8월23일(일) 오후 2시-5시
- 곳: 성북구 길음동 본원
- 문의: 010-8828-2754(cafe.daum.net/sghpb)

함께해요! 감사와 사랑 운동 2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손이 필요할때
'도와줍니다.'

외국인을 위한 미사

외국인들을 위한 미사가 아래와 같이 봉헌됩니다.

언어/공동체	미사 시간	장소	문의
영어	주일 오전 9시	명동성당	774-1784
	주일 오전 9시	외국인(국제)성당(한남동)	793-2070
	주일 오전 9시30분	성북동성당	3673-4251
	주일 오전 9시30분	역삼동성당(경환당)	553-0801
	주일 오전 11시	외국인(국제)성당(한남동)	793-2070
	주일 오후 2시	녹양동성당(의정부교구)	031)876-2266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30분	창현성당(의정부교구)	031)594-0340
필리핀 공동체 (타갈로그어)	첫째·셋째 주일 오전 11시	성동종합사회복지관(마장동)	2290-3100
	주일 오전 11시30분	살레시오회 성당(대림동)	765-0870
	주일 오후 1시30분	혜화동성당	764-0221
	둘째·넷째·다섯째 주일 오후 1시30분	창현성당(의정부교구)	031)594-0340
	첫째 주일 오후 3시	이주센터 EXODUS 경기서부	031)975-5413
	월·화·목 오후 6시30분	필리핀 센터(성북동)	765-0870
	수·금·토 오후 8시30분	동두천성당(의정부교구)	031)864-4300
목 오후 2시30분	동두천성당(의정부교구)	031)864-4300	
토 오후 7시	구리성당(의정부교구)	031)552-0081	
프랑스어	토 오후 6시		
독일어	주일 오전 10시	외국인(국제)성당(한남동)	793-2070
이탈리아어	주일 오전 11시15분		
스페인어	주일 12시30분		
남미 공동체	첫째 주일 오후 3시		
	둘째·넷째 주일 오전 11시	노동사목회관 성당(보문동)	924-2706
	둘째·넷째 주일 오후 4시30분	동두천성당(의정부교구)	031)864-4300
	셋째 주일 오후 5시	금촌성당(의정부교구)	031)941-3650
베트남 공동체	주일 12시	베트남 공소(보문동)	924-2706
		녹양동성당(의정부교구)	031)876-2266
태국 공동체	셋째 주일 오후 3시30분	노동사목회관 성당(보문동)	924-2706
한족 공동체	주일 오후 1시30분	이주노동자의 집(가리봉)	839-8056

Mass Schedule for Foreigners

The mass for foreigners as follows.

Language	Time	Place	Tel
English	Sun, 9:00 AM	Myeong-dong Catholic Cathedral	774-1784
	Sun, 9:00 AM	Catholic International Parish	793-2070
	Sun, 9:30 AM	Seongbuk-dong Catholic Church	3673-4251
	Sun, 9:30 AM	Yoksam-dong Catholic Church	553-0801
	Sun, 11:00 AM	Catholic International Parish	793-2070
	Sun, 2:00 PM	Nogyang-dong Catholic Church	031)876-2266
	1st · 3rd Sun, 1:30 PM	Changhyun Catholic Church	031)594-0340
	1st · 3rd Sun, 11:00 AM	Sungdong Social Welfare Center	2290-3100
	Sun, 11:30 AM	Society of Salesio Church (Daerim-dong)	765-0870
	Sun, 1:30 PM	Hwehwa-dong Catholic Church	764-0221
Tagalog (For Philippine)	2nd · 4th · 5th Sun, 1:30 PM	Changhyun Catholic Church	031)594-0340
	1st Sun, 3:00 PM	Migrant workers Center EXODUS	031)975-5413
	Mon, Tue, Thu 6:30 PM	Philippine Center (Seongbuk-dong)	765-0870
	Wed, Fri, Sat, 8:30 PM		
French	Thu, 2:30 PM	Dongducheon Catholic Church	031)864-4300
	Sat, 7:00 PM	Guri Catholic Church	031)552-0081
German	Sat, 6:00 PM		
	Sat, 10:00 AM	Catholic International Parish (Hannam-dong)	793-2070
	Sat, 11:15 AM		
Spanish	Sun, 12:30		
	1st Sun, 3:00 PM	Jinjob Catholic Church	031)572-7264
	2nd · 4th Sun, 11:00 AM	Pastoral Center for Labor	924-2706
	2nd · 4th Sun, 4:30 PM	Dongducheon Catholic Church	031)864-4300
Vietnamese	3rd Sun, 5:00 PM	Keumchon Catholic Church	031)941-3650
	Sun, 12:00	Vietnam Statio Secundaria	924-2706
		Nogyang-dong Catholic Church	031)876-2266
Thai	3rd Sun, 3:30 PM	Pastoral Center for Labor	924-2706
Chinese	Sun, 1:30 PM	Garibong House for migrant workers	839-8056

알림

모임

주일학교 교사 피정

· 때: 8월29일(토)-30일(일) / 041)733-2992-4
 · 곳: 씨튼영성의 집(주최) / www.setoncent.or.kr

젊은이 토요 L.D 피정

· 때, 곳: 8월29일(토) 14시-22시, 한강진 수녀원
 · 문의: 010-4529-3429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방배동성당 성령기도회

· 강사: 김종국 신부(말씀·안수)
 · 때, 곳: 8월19일(수) 20시-22시 / 010-7277-1196

하느님을 갈망하는 젊은이를 위한 피아모임

· 때: 8월23일(일) / 010-5247-8913, 010-3825-4999
 · 주최: 원죄없으신 마리아 수녀회, 글라렛 선교 수도회(홈페이지: cafe.daum.net/fiatmeeting)

“예, 여기있습니다” 여름 대피정

· 대상: 34세 미만 미혼여성 / 문의: 016-9876-0418
 · 때, 곳: 8월28일(금) 14시30일(일), 스승 예수 피정의 집(여주) / 회비: 4만원(주최: 스승 예수 제자수녀회)

작은 예수회 치유 기도회(문의: 016-309-0048)

· 미사: 박성구 신부(치유: 이명환, 이해봉)
 · 때, 곳: 매주(화) 13시-17시, 작은 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삼성산 성지 성모송 2천번 기도회

· 성도: 송광섭 신부(면담과 미사) / 874-6346
 · 때: 8월17일(월), 24일(월) 오전 9시30분-오후 5시
 · 곳: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011-277-0317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직장인 성서모임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그룹원 모임
 · 개강미사: 9월7일(월) 19시30분 / 010-8892-2799
 · 장우송(온라인 접수: club.cyworld.com/feebible)

춘천에서 하는 성 골롬반 외방선교 수녀회 주말피정

· 대상: 해외 선교에 관심있는 젊은여성
 · 때, 곳: 8월22일(토) 15시-23일(일) 15시, 춘천본원
 · 문의: 010-7101-9302(www.columban.to)

분도 명상의 집(부산) 묵상피정

· 준비물: 성경 또는 매일미사책 / 회비: 9만원
 · 때: 9월4일(금) 16시(접수)-6일(일) 14시(피정 마침) / 문의: 051)582-4573, 010-6650-4574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회와 미사

· 집전: 유용덕 신부 / 010-5245-0121, 016-9282-2422
 · 때: 8월24일(월) 13시30분-17시(기도: 박용해)
 · 곳: 말씀의 선교 수도회(주최) / 전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에서 05번 마을버스 종점

11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철야기도회

· 내용: 고해성사, 미사, 강의, 안수 / 579-9870
 · 때, 곳: 매주(금) 오후 10시30분-오전 4시, 개포동성당

8월21일 배수관 신부 8월28일 이미숙 수녀

제주 성 이시들 피정센터(문의: 773-1455)

매일미사, 새미 은총의 동산 기도회
 말씀, 성지순례, 자연과 함께
 9월6일-8일, 9월19일-22일, 10월8일-10일, 10월14일-17일

8월17일(월) 9시30분-12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정재준 신부 / 책 조정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기도모임(문의: 757-1416, 7)

내용: 말씀, 묵상기도와 찬양, 은혜의 시간, 안수, 미사
 때: 매주(목) 12시30분-17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대상: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매주(월) 22시30분,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때, 곳: 매월 둘째·넷째(토) 10시-17시,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교육

청담동성당 성령세미나

· 때: 9월19일-11월7일 매주(토) 20시-22시(7주간)
 · 곳: 청담동성당(강사진 신부) / 011-4125368, 010-2224-1004

한국수화 기초반 개강

· 개강: 8월23일(일), 오전 9시-10시40분 / 강사: 최혜영
 · 문의: 010-5008-9245(sonlove1004.cyworld.com)
 · 곳: 낙성대성당 손끝사랑 / 회비: 5만원(교재비 포함)
 · 교동미사 수화통역(지화병행): 매주(일) 11시

2009년 2학기 역삼동성당 강남가톨릭문화원

가톨릭상담심리사 양성교육(문의: 070-8235-1617)
 · 대상: 가톨릭상담, 종교영성심리에 관심있는 교우 및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강사: 상담심리전문가) / www.kcqa.org
 · 과목: 상담심리, 종교영성심리, 가톨릭상담, 발달심리
 · 때, 곳: 9월1일부터 매주(화·목) 주2회, 역삼동성당
 · 회비: 70만원(한 학기), 17만5천원(과목당)

제19기 미술치료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대상: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관련기관 종사자, 일반인 등 / 회비: 25만원(총15회)
 · 내용: 미술치료 이론체계, 그림심리검사 및 심리진단, 체험워크숍 등 / 2290-3151, 3154 성동복지관
 · 때: 9월1일-12월8일 매주(화) 19시-21시30분
 · 계좌: 기업은행 260-006397-01-211 성동복지관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안내

· 강사: 조규만 주교, 김영춘·박준양·유수일·김준철·민병덕·정의철 신부, 최혜영 수녀, 한홍순·노길명·조광 교수
 · 회비: 10만원(학기당), 7만원(수도자·학생)
 · 때: 9월7일-12월14일 매주(월) 19시-21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77-2013(팩스: 778-7427)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성서 40주간 2학기 개강(가톨릭 성서모임)

· 시서와 지혜서부터 / 회비: 3만원(교재비 별도)
 가톨릭성서모임 본부 8월31일부터 매주(월) 10시-12시30분 824-4363, 5
 (축복성 성모교육원) 9월2일부터 매주(수) 20시-22시

작은예수사랑음악원 기악 강습

· 곳: 작은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문의: 018-330-3283

기타: 18만원(3개월) 드럼 키보드(회생학)
 일렉베이스: 24만원(3개월) 18만원(3개월) 초급(3개월) 18만원, 중급(3개월) 24만원(3개월) 월.수.목(주.화) (7월) 2만원(월·수·목·주·화)

가리마사방배 성서교육관 2009년 2학기 '여정' 성경공부

· 회비: 4만5천원(과목당) / 문의: 525-7869
 · 곳: 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5분거리

개강 오전 10시-12시 오후 8시-10시 개강 오전 10시-12시
 8월31일(월) 가톨릭서간 가톨릭서간 9월3일(목) 마르코 복음
 9월1일(화) 시서, 지혜서 역사서 1 9월4일(금) 역사서 1
 9월2일(수) 루카, 사도 마르코복음 9월5일(토) 요한복음

<책으로 읽는 성경>, <여기에 물이 있다> 교육

· 때: 9월1일-12월1일 매주(화), 서울 푸르실료회관(합정동 철도산성지 입구) / 081)985-2835 미래사목연구소

<책으로 읽는 성경> 쉽고 재미있고 일관성 정경통독 / 강사: 차동엽 신부
 때: 오후 1시-6시 / 회비: 3만원(선착순 접수)
 <여기에 물이 있다> 의무(윤펄) 신앙이 아닌 신비(관) 신앙 형성
 강사: 차동엽 신부, 미래사목연구소 전문강사
 때: 오전 9시-12시 / 회비: 3만원(선착순 접수)

2학기 토착화신학당(한국 그리스도사상연구소)

· 주제: 신앙과 신비체험, 영성도착화
 · 회비: 10만원(한 학기), 5만원(수도자) / 925-3991
 · 때, 곳: 9월9일-12월9일 매주(수) 오후 2시-4시

9월9일 개강미사(신앙과 신비체험, 영성도착화)
 심상태(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장)
 9월16일-10월14일 예수, 장자, 니체 / 이승자박사(평신도 신학자)
 10월21일-11월19일 이시들의 성 프란치스코의 신비체험(고계영신부(작은형제회))
 11월1일-12월22일 그리스도 신비체험과 관상기도 / 박승문 신부(대전가톨릭대학교)
 12월9일(중강) 신앙과 신비체험 영성도착화(중앙미사연구소) / 삼태연구소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26-0700)

미음의치유와성장을 위한 월례강좌	9월-12월 셋째주(금) / 2학기 심리발달과정 이해와 장자의 치유, 마음훈련
감수성 훈련	9월3일-10월1일 매주(목) 10시-17시(5회) 지금 여기에서의 정서적 민감성 훈련
개인상담	전문 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 문제해결
종합심리검사	정서적 행동과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총 7가지 검사와 검사해석 / 무료전화상담: 726-0771(월-토) 10시-17시

모집

중림동약현성당 부설 가평유치원 행정직 모집

· 서류: 최종학력 증명서, 교적증명서, 이력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기소개서 / 362-7593, 010-5301-9999

서울가톨릭간병인회 남·녀 간병인 양성 교육 및 모집

· 때, 곳: 8월25일(화)-27일(목) 9시30분-17시, 교구청 별관 5층 522호(선착순 20명, 환불 안됨) / 928-7185
 · 회비: 7만원 / 우리는행 1005-701-131505 (재)전주교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성음악아카데미 학생모집

· 대상: 본당 음악봉사자 및 교회음악에 관심 있는 분 / 오르간, 피아노, 성악 실기 개인레슨
 · 문의: 393-2213-5(공휴일 휴무)

미사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 때, 곳: 8월21일(금) 11시30분, 가톨릭회관 소성당(101호) / 756-1691(내선 1번) 한국교회사연구소

신당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월례미사

· 때, 곳: 8월17일(월) 오후 2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주최) 2층 강당 / 문의: 2231-1876-9

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때, 곳: 8월20일(목) 오전 11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 내용: 미사(이준성 신부)와 친교
 · 문의: 753-8765 새천년 복음화사도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구일기도회와 미사

· 내용: 구일기도 및 강의, 미사 전후에 고해성사
 · 때, 곳: 8월17일(월) 오후 2시, 수유1동성당
 · 구속주회 본원: 매주(토) 오전 11시
 · 문의: 598-1312, 010-4189-5755 구속주회 신부

안내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문의: 582-6004, 6012)

· 기관 신축·단기보호센터 입주자 추가 모집
 · 방문요양, 방문목욕 대상자 추가 모집

성 바오로 수도회 2020 이벤트(문의: 548-3623)

· 성 바오로 모든 도서, 음반, 성물, 카드 등 20% 할인 보급 함 / 2278-6607 저동서원, 479-1731 천호동서원

성 바오로 병원, 건강강좌 및 동맥경화협착 무료검진

· 건강강좌, 동맥경화도 및 사지혈압측정, 목동맥 초음파 무료검사(사전예약 필수)
 · 때, 곳: 8월26일(수)-27일(목), 가톨릭대학교 성 바오로병원 별관 7층 강당 / 958-2084(평일 8시-17시)

2009년 제 3기 84기 문화강좌 안내(9-11월)

오르간	매월초부터 매주(수) 9시-18시 / 회비: 12만원 / 범우관 408·409호
꽃꽂이	초급반 매월초부터 매주(금) 10시-11시 / 회비: 2만원 중급반 매월초부터 매주(금) 11시-12시 / 회비: 2만5천원 전해반 매월초부터 매주(금) 11시-12시 / 회비: 3만원 / 범우관 410호
서예	9월2일부터 매주(수) 10시-12시 / 회비: 7만원
목화	9월3일부터 매주(목) 15시-17시 / 회비: 8만원

· 문의: 774-1784(교환 215) 명동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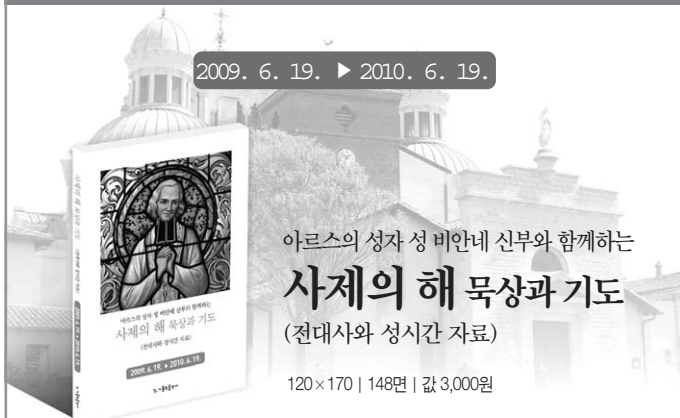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서울대학교 출판기관인 가톨릭출판사에서 매월 셋째 주 '문화마당' 란을 통해 신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제의 해' 묵상과 기도가 총망라된 책! 사제를 위한 기도를 바치면서 전대사의 은총을!

2009. 6. 19. ▶ 2010. 6. 19.



아르스의 성자 성 비안네 신부와 함께하는
사제의 해 묵상과 기도
(전대사와 성시간 자료)

120×170 | 148면 | 값 3,000원

이 책은 성 비안네 신부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열두 가지 사건을 통해 묵상하고, 전대사의 일반 조건을 이행한 후 매달 첫 목요일 예수 성심의 거룩함을 공경하는 성시간을 바쳐 전대사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1년간 이 책을 읽으며 묵상하고, 사제들을 위해 기도를 바친다면 한국 교회의 사제들, 나아가 세계의 사제들이 성 비안네 신부처럼 훌륭히 사제직을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제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는 목자에게 가장 좋은 영적 선물을 드리고, 아울러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 사제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하느님 사랑의 참목자!



아르스의 성자
성 비안네 신부

미셀 드생 피에르 지음 | 심바오로 옮김 | 값 9,000원

이 책은 사람들의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사제가 되려는 꿈을 좇아 평생 인내와 겸손, 사랑과 고행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 성 비안네 신부의 일생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비처럼 내려진 매일의 전례에 따른 묵상과 기도, 21세기 하느님 이야기



당신의 아침을 여는 **말씀지기**

96면(한글판) · 80면(영문판)
각 권 900원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성된 월간 묵상집입니다. 매일의 전례에 따른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한 '30일 묵상', 사제들의 자아 성찰과 단상을 솔직 담백하게 담아 놓은 '아침 뜨락', 그달의 주제에 맞는 가르침이나 인물들 심도 있게 탐구하는 '영성 에세이' 등 묵상과 기도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칼럼들로 채워져 있어 하루하루 하느님을 향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출판사 * 영업팀 070-8233-8221 * 인터넷 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

뮤지컬 '일 빼노끼오'

· 입장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4만원
· 공연시간: 평일 20시 / 토 15시, 19시 / 일 14시, 18시 / 20일 15시, 20시



소설 '빼노끼오의 모험'을 바탕으로 한 이태리 오리지널 뮤지컬 '일 빼노끼오'가 8월23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다. 목수 제페토가 만든 나무인형 빼노끼오가 악당의 꾀에 넘어가는 등 온갖 모험을 겪으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진짜 소년이 되는 내용이다. / 예매 및 문의: 3461-0976

2인 이상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 시 15%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2인까지 할인가능).

제9회 PBC 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 문의: 2270-2235 평화방송 기획관리국, 019-9713-2365 지휘자



유럽 순회연주를 성황리에 마치고 귀국한 PBC 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이 8월20일(목) 오후 7시 30분, 여의도 KBS홀에서 정기연주회를 한다. 아름다운 안무가 어우러진 세계 민요와 가곡,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발췌 무대로 꾸며질 이번 공연은 듣는 이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것이다. 전석 초대로 당일 입장이 가능하다.